

2019년 8.15 평화통일 남북/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 손으로 대한(조선)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슬을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천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각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트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 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쟁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 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 행진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 다. 남과 북/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구도에서 남북/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 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 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 지 않게 하시고 남북/북남의 공존공영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조선) 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북남의 민이 서로 웃 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 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 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2019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조선그리스도교련맹중앙위원회(KCF)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안동 054.854.5481	인천 032.424.0524	춘천 033.254.4878
거제 055.682.4950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안산 031.483.6536	전주 063.224.5501	충주 043.848.3240
경주 054.772.8141	대구 053.652.0070	서울 02.3705.6000	안양 031.455.2700	제주 064.711.8322	통영 055.646.2547
고양 031.919.4040	대전 042.254.3035	서천 041.951.6400	양산 055.367.1144	제천 043.645.2580	파주 031.945.5998
광명 02.895.1966	동해 033.531.3007	성남 031.708.2503	여수 061.654.2161	진주 055.755.3463	평택 031.651.7701
광양 061.762.0012	마산 055.246.8746	세종 044.865.2432	울산 052.247.3520	진해 055.542.0020	포항 054.274.4444
광주 062.609.1300	목포 061.242.1611	속초 033.635.3523	원주 033.742.6090	창원 055.283.9488	하남 031.793.7771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수원 031.252.5111	의정부 031.853.6332	천안 041.575.0961	관서발전본부 063.462.4491
남양주 031.577.7762	부천 032.668.9700	순천 061.744.7990	익산 063.857.8910	청주 043.265.3700	

한국 YWCA

2019년 7·8월호

July·August

Vol.562

기획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

Women Economic Empowerment in Asia
아시아Y청년포럼

청년토크

안사요! 안가요!

이달의 현장

제1차 YWCA 미래가치포럼
제4차 길 위의 평화포럼
대학·청년Y 전국회원대회

특집 Y-틴 여름행사

Y-틴 드림십 프로그램
Y-틴 히로시마 평화순례
Y-틴 지역별 회원대회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제1차 한일YWCA협의회 회의 장면 양국이 지닌 갈등을 해소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웃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갔다.

1974년 재일교포 박종석이 일본공장에 취업하려다가 외국인 고용차별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외국인 고용차별이 지속되자 한국Y는 같은 해 7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유권자연맹과 함께 '재일교포 권익옹호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일본Y와 함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YWCA협의회'를 구성했다. 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는 본 협의회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양국 간의 큰 문제들은 공식기구를 통해 정치적인 해결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는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전쟁이라는 경험을 모르고 자란 일본의 젊은 세대들, 미래의 세대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우리 협의회가 기독교여성단체로서 비협조적이며 편견을 가진 양국의 일부 시민들의 태도를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세계Y에 속한 일원으로서 정부들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었다.

차시	내용
제1차 한국 1975. 10	- 발제 '일본Y가 보는 한일사회문제'(마야코이시 도쿄Y회장), '원폭피해자문제'(구로키 일본Y연합회), '한국Y가 본 한일 사회문제'(정광모 서울Y이사) - 재일교포의 주택, 교육, 취업차별철폐와 재한 일본기업체들의 한국근로여성 복지향상을 도모 방안 협의
제2차 일본 1977.6.6~11	- 재한 피폭자 보상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 재일한국교포 지위향상을 위한 Y실무자 교류, 문화이해를 위한 청소년교류가 있었음
제3차 한국 1981.10.11~17	- 재일동포들의 지위와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춤 - 양국 간 공동관심사로 평화문제, 핵문제, 인권문제의 차원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제4차 일본 1987.11.23~28	- 지문날인, 일본의 교과서왜곡, 피폭자, 재일교포차별 문제 대폭 제기 - 재일한국교포 차별철폐,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
제5차 한국 1992.11.23~28	- 양국 간 과제(역사왜곡 시정/큰 행사에 대표 파송, 청소년회원교류, 회원Y 간 자매결연 증진 등 교류활동 전개)수행을 위한 노력 결의 - 아시아지역 과제(환경보전/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문화 제거를 위해 협력/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해결을 위한 노력 결의
제6차 일본 1994.2.17~27	-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미래의 한일관계'(김영정 연합회 실행위원) 발표 - 한일Y협의회 평가, 계획 등을 토의
제7차 한국 2010.10.7~10	- 발제 '1920년대 한일기독교 역사상황과 기독교사회운동'(연세대 서정민 교수) - 평화를 향한 한일YWCA 공동과제 협의
제8차 일본 2014.1.22.~25	-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YWCA의 협력' 평화실현을 위한 노력 논의 -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군사기지 철폐 노력/ 핵 없는 사회를 위한 탈핵운동 결의
제9차 한국 2016.8.21~25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 여성들의 공동 과제 합의 및 실천방안 모색 - 한국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증언, 질의응답)
제10차 일본 2019.1.11.~14	- '한국·일본의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동아시아의 평화' -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징용 보상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배상책 마련/ 생명존중 문화 위한 행동계획 마련

한·일YWCA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의 침략과 고통의 역사를 딛고 정의, 평화, 생명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연대를 이어나가고 있다.

출처 한국YWCA 80년사

2019. 7·8 한국YWCA



표지이야기

아시아YWCA지역회의 기간 중 아시아Y청년포럼이 열렸다. 싱가포르, 인도,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한국 등 7개국 24명의 청년들은 여성청년들과 관련된 4가지 주제로 '세이프 스페이스', '세이프 아시아'를 외쳤다.

2019년 9·10월 주요일정

9월 5일

제2차 YWCA 미래가치포럼

9월 19일

제5차 길 위의 평화포럼

9월 25일

제2차 성평등운동담당자 워크숍

9월 30일~10월 2일

'한라에서백두까지' - 태백편

10월 15일

2019 YWCA정책협의회의

10월 24일

제3차 YWCA 미래가치포럼

제55권 제6호 통권 562호

2019년 8월 21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001)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2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한일YWCA협의회
- 04 **이달의 생각** 오래된 미래로! Y는 사람이다 | **조은영**
- 05 **말씀묵상**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구하기 | **김성희**

기획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

- 06 ① Women Economic Empowerment in Asia | **최형미**
- 10 ② 아시아Y청년포럼 | **김수진**

- 12 **칼럼** 비영리조직 그리고 사회적경제 | **김기태**
- 14 **탈핵**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 **양이원영**
- 16 **평화** 남북 그리스도인과 세계교회들의 화해와 일치의 길 | **최수산나**
- 18 **여성** 성폭력 무고사건 현황과 과제 | **이하나**
- 20 **청년토크** 안사요! 안가요! | **대학·청년Y**
- 22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반평화적 조치들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 23 **이달의 현장①** 제1차 YWCA 미래가치포럼
- 26 **이달의 현장②** 제4차 길 위의 평화포럼 | **박혜진**
- 28 **이달의 현장③** 대학·청년YWCA 전국회원대회 | **이수진**

특집 Y-틴 여행행사

- 30 **드림십 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세상 | **류한비**
- 32 **2019년 히로시마 평화순례** 우리가 평화가 되자 | **신연진**
- 34 **Y-틴 지역별 회원대회** 있잖아, 너의 가능성은 충분해 | **최선화**

- 3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주전장> | **이윤숙**
- 38 **이달의 포커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 · 서울 기림비 제막식

- 39 **연합회 소식**
- 42 **회원YWCA 소식**

오래된 미래로! Y는 사람이다

조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산업화와 지식사회와 자본주의로 대변되었던 성취와 발전 중심의 지난 세기를 뒤로하고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는 협력과 공유경제를 통한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시대를 미래 학자인 다니엘 핑크는 ‘하이컨셉’과 ‘하이터치’의 시대라고 말한다.

‘하이컨셉’이라 함은 트렌드와 기회를 포착하고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하이터치’란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의 미묘함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를 전파하는 능력으로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과 같이 복잡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이제는 머리로 분석하던 시대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탄생 100주년을 바라보며 성장과 성숙을 지속해온 YWCA는 다음 세기를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2년 간 우리 안의 리더들에게 이런 저런 기회로 우리의 다음 100년을 위한 미래비전에 대해 묻고 의견을 들었다.

우리의 리더들은 ‘목적론’을 기반으로 다음 세기에도 ‘지속가능한 기독교청년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의 공통된 키워드들

은 영성, 존중, 소통과 열정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들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였는데, 자원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키워드들은 비전 제시, 다양성 포용, 섬김과 헌신이었다. 더불어 실무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키워드는 사명감, 상호 협력, 전문성, 행정력, 실천력과 업무 추진력이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미션, 가치 지향은 지난 100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낡고 진부한 것인가?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행동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비전과 사명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방향성은 다음 시대에도 적합한 가치들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를 21세기 버전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조, 시스템과 과정을 어떻게 구축하여 의미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해결과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정 어린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다. Y와 함께한 20여 년의 여정에서 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이야기는 “Y는 사람이다”였다. 이제 돌아가기로 한다. 오래된 미래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혼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거듭나는, 행동하는, 우리가 Y이다. 

사도들의 사도, 막달라 마리아 구하기

김성희
안산대학교 교목



누가복음 8장 1절~3절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 받음, 자기 재물로 예수를 섬김, 부활의 첫 증인’ 이 세 가지만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 자료 전부이지만, 기독교역사는 여성혐오적 루머들- 창녀, 죄 많은 여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뒤집어씌운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그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설교(고전 15장3절)에도 그녀의 이름은 빠져있다. 그 이후, 정통기독교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역할은 희미해져갔다. 그런데 외경에 있는 복음서들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첫 사도로, 위로자, 격려자, 목회자로 묘사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전승이 약화되고 죄 많은 여인으로 왜곡된 이유로, 아마 그 저변에 혐오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전승이 사라지고 회개한 창녀 같은 전승들이 더 우세해진 것은, 남성중심적인 지도세력이 교회를 제도화하면서 여성들의 전승을 대상화하고 약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을 죄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로 상정하고, 자신들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권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하였을 때 여자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것이다.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던 베드로가 여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예수께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여성들의 전승은 사라져가고 왜곡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되지도 않는 창녀의 이미지에서 역사적 근거가 있는 사도들의 사도로,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구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막달라 마리아를 구하는 것은 아직도 약자들을 혐오하면서 대상화시킴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근원적 방어기제를 지적해내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고 억압적인 제도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 약자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구조와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합하고 일어서야 함을 의미한다.

막달라 마리아를 구하는 것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의지의 실천이며, 이해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길인 것이다.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 참가자들

최형미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아시아 여성들이 주인공이 된 국제무대

국제무대에서 여성들이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유엔기구가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서야 여성들은 멕시코 시티(1975)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후 국제여성회의는 빈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들의 이슈를 이해하지 못했고, 계몽과 교육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차별을 타개하는 방법은 '아시아 여성들끼리', '아프리카 여성들끼리' 주제로서 만나 서로의 이

슈와 상황을 직접 듣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YWCA는 아시아 12개국 대표와 청년들을 초대해 '아시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은 "세계 식량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생산하는데, 그들이 버는 돈은 10%에 불과하고, 소유한 재산은 1%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번 회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일까?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

2019아시아YWCA지역회의가 6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열렸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대만, 네팔, 일본, 말레이시아 12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 여는 예배(장윤재 이화여대 목사), 개회선언(한영수 회장), 축사(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여성 경제적 역량강화와 아시아지역 네트워크' 주제강의(진행 함희경 실행위원, 발표 이은영 실행위원), 국가별보고(진행 조은영 실행위원), 환영 만찬이 있었고 둘째 날, 아시아YWCA 활동 공유 워크숍(진행

김은경 실행위원), 서울Y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 센터 현장 방문(진행 백혜진 실행위원)을 진행했다. 셋째 날, 코이카 간담회(진행 원영희 부회장) 및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과의 간담회(진행 이종임 부회장), 아시아YWCA 그룹별 모임(진행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 아시아Y청년포럼, 닫는 예배(김신애 목사), 환송 만찬과 국가별 문화축제(진행 함희경 실행위원)에 이어 넷째 날 평화누리공원, 도라산전망대 현장 방문으로 전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공통의 가사노동의 불합리한 현실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했다.

여성, 영성 그리고 경제학

사람들은 경제를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Economy)는 '살림'을 의미하는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유래했다. 에코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Mariamies)는 돈벌이 경제는 경제라는 거대한 빙산의 끝자락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무급노동, 자급을 위한 텃밭, 돌봄, 물물교환 등 여성 활동은 바로 수면 아래 있는 거대한 경제에 속한다. 삶을 운영하는 경제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다. 경제적 임파워먼트는 여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경제 이야기는 다양하다.

신앙과 경제가 만나면 경제는 가난한 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 우선의 살림이 된다. YWCA가 오랫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이유다. 개회예배에서 장윤재 목사는 아침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나눠준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했다. 주인은 사람이 얼마큼 일했는가보다 일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걱정했다.

기독교의 경제는 일한 만큼 주는 거래가 아니라 돌봄과 나눔을 중심에 둔 여성의 경제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경제란 힘 있는 자들이 좀더 벌려고 싸우는 화려한 전투장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 분쟁에 휘말린 자들, 이방인 된 자들도 이 땅에서 모욕당하지 않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림을 운영하는 일이다.

약자를 돕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아시아 YWCA

이번 경제적 역량강화 이슈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하는 다양한 활동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어머니들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직장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은 지적발달장애 여성들이 일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대만에서는 이주민 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펼치고, 태국은 불법이주민들, 무국적자들 혹은 소수민족들에게 직업훈련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조흔 관행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성차별과 폭력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다. 인도YWC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생애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

스리랑카는 YWCA가 세워진 지 137년이 넘는 나라로, 여성들에게 미용이나 바느질을 가르치는 성역할 전형성에 갇혀있지 않고 농업기술이나 운전기술을 배워 사회적 젠더규범에 도전하며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다.

미얀마YWCA는 특히 분쟁지역 취약여성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들은 여성들을 모아 바느질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치유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필리핀은 아시아지역에서 성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 그들은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융 문해력을 높이고 있었다.



각국 활동 공유 워크숍



검은 목요일을 맞아 여성폭력근절을 외침



이대 앞 상권 청년몰 조성사업 현장 방문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결정하고

셋째 날, 참가자들은 아시아 여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공간이 펼쳐진 것이다. “아시아지역 홈페이지를 만들자”, “각국 청년들을 인턴으로 보내 청년 인재를 키우자”, “펀드를 만들어 서로 돕는 일을 하자” 등 아시아 공동체에 관해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아시아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더 많은 이득을 얻자고 덤비는 기업들과 달랐다. 여성들의 모임에는 서로를 살려내고 힘을 더하고 돌보려는 사랑이 넘쳐났다. 그것이 영성(Spirituality)인 것이다.

전체 지역 발표를 진행한 한미미 세계YWCA부회장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펀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공통으로 나왔군요. 우리는 이제 펀드를 달라고 매달리지 말고(begging fund) 우리에게 투자를 하라고(raising fund)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는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가 지구 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체계적으로 펀드를 모금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만찬의 시간이 되었다. 각국 참가자들은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근대 아시아 국가는 남성들이 현대화되는 것을 허용했지만, 여성들에게는 전통의상을 고집하고 이들을 국가행사에 동원해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들에게 양전하고 우아한 여성성으로 국



한승만찬과 국가별 문화 축제

가의 품위를 지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여성이 주체가 되고, 귀빈이 되는 아시아지역모임에서 전통의상은 더이상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들은 포용하며 국가주의의 벽을 무너뜨렸고, 일탈의 춤으로 가부장적 통제에서 자유로웠다. 한국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거추장스러운 양전함을 털어버렸다. 스리랑카 참가자가 가르쳐준 춤을 함께 추었으며, 일본 참가자가 노래를 부르자 다함께 발을 구르고 손뼉을 쳤다. 참가자들은 역동적이고 젊었다. Y(young) 다운 모습이다.

무대에 오른 한영수 회장은 “벌써 헤어질 때가 되었네요.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참가자들의 환호가 명동을 들썩이게 했다. 이 소박한 인사에 담긴 커다란 사랑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모임은 다음을 기약하며 뜨거운 포용을 했다. 



평화누리공원과 도리산전망대 방문

해외참가자 소감문

자매YWCA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Sonali Jayasekera
스리랑카YWCA 청년참가자



11월에 열릴 YWCA세계대회에 앞서 개최된 이번 아시아YWCA지역회의는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 그룹 토의를 통해 각 YWCA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 우리의 역할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래에 다가올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직업훈련과 개발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세계 동향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었다. 이 귀한 자리를 통해 다른 자매 YWCA들과 함께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위협 등을 공유했고 이에 대한 활동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스리랑카YWCA에 적용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여학생들은 여성을 위한 직업 훈련, 여성학습센터 개설, 여성일자리 개발, 위생교육, 양질의 교육 제공, 취업기회 발굴, 기금 모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YWCA를 대표하여 이 멋진 행사를 주최한 한영수 회장님과 한국 YWCA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시아YWCA지역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한 대단한 노력과 훌륭한 계획이 돋보였다. 12개국에서 온 YWCA 자매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YWCA의 모토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아시아 국가들 간 연대가 중요하다

Tin Tin Htwe
미얀마YWCA 회장

아시아YWCA지역회의는 우리가 대면하고, 함께 이슈를 공유하고, 양질의 토론을 하고, 아시아 지역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YWCA가 강하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모임의 중요성과 함께 YWCA자매들의 단결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매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YWCA가 테이블에 둘러앉아 했던 토론들을 발판삼아, 여성을 위한 많은 공동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미얀마YWCA로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문제 해결은 아시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Chandra Thapa
네팔YWCA 부회장

이번 회의를 통해 많은 경험과 즐거움 그리고 배움을 얻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는 YWCA회의에서 매우 중요하며, 연대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에 YWCA에 필요한 요소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에 관한 문제는 아시아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시아YWCA지역회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워크숍을 조직하는 과정, 네팔의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다양한 YWCA 회의와 프로그램 등 네팔 YWCA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 또한 모든 회원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는 네팔에 도입할 수 있는 많은 학습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네팔의 강간, 배신, 폭행, 저축금 제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네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아시아Y청년포럼 '세이프 스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수진

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아시아YWCA지역회의 기간 중 28일(금)에 '아시아Y청년포럼'이 열렸다. 싱가포르, 인도, 일본, 태국, 필리핀, 홍콩, 한국 7개국 24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여성청년과 관련된 네 가지 주제 '세이프 스페이스'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각 주제는 '여성폭력, 노동시장, 미디어 속 성차별, 여성의 몸'으로 각자의 일상경험과 각 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여성폭력: 사회적인 억압 또한 폭력

여성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인 곳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까지 여성혐오가 만연한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여성의 숨통을 쫓는다. 여성폭력 테이블에 참가했던 태국, 홍콩, 한국의 여성청년들은 폭력의 범주를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성에게 적용되는 억압적 제도도 포함시켰다. 각 나라의 여성들이 사회적인 억압 또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당한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특별히 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노동시장: 성차별, 여성혐오가 녹아있는 곳

고용에서부터 노동환경 그리고 여성의 노동 자체에도

성차별, 여성혐오가 녹아있다. 노동시장 라운드테이블에는 필리핀, 한국의 여성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9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필리핀은 남성이 집에 있고,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자체가 작았다. 필리핀의 여성들은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며 특히 영어강사로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미디어 속 성차별: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는 성차별, 여성혐오

미디어 속 성차별 테이블에는 인도, 한국의 여성청년이 참가했다. 한국과 인도의 성차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차별, 성희롱을 하

고 여성혐오를 한다.

한국은 주방세제 광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 50년 동안 여성만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를 이야기하며 긍정적 사례로 펌버타이징(Femvertising: Feminism + Advertising)으로 77사이즈 체격의 모델이 광고에 나오며 성 고정관념을 제거한 예를 소개했다.

인도는 신부지참금 제도인 '다우리(Dowry)'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한국 돈 약 1억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도 문화를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서 인도의 여성 영화감독들은 이런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페미니스트 영화, 성소수자 영화를 많이 만든다고 소개했다.

여성의 몸: MY BODY MY CHOICE

가장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참가한 '여성의 몸' 테이블에는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총 5개 국가의 여성청년들이 함께 했다. 여성의 몸을 둘러싼 이슈인 낙태, 임신과 출산, 성매매를 소주제로 진행했다.

싱가포르는 워낙 병원비가 비싸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제도는 없다. 그 외의 국가도 마찬가지로 낙태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는 없다.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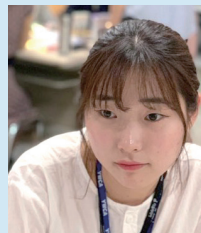
태가 합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태 시술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낙태가 불법인 필리핀에서 또한 안전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산모가 사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몸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낙태가 논의되어야 할 때임을 서로 공감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 남성들이 필리핀으로 성매매 관광을 많이 간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대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JK 비즈니스'가 문제되고 있는데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10대 여학생들이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룸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대화를 나눠준다는 명목 하에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다르지만, 아시아 안에서 여성으로 처해져있는 좋지 않은 상황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씬쓸하게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아시아Y청년포럼을 통해 각 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나 개인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고, 일상에서 함께 연대할 지점을 논의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참가 소감



강희서
서울YWCA 대학·청년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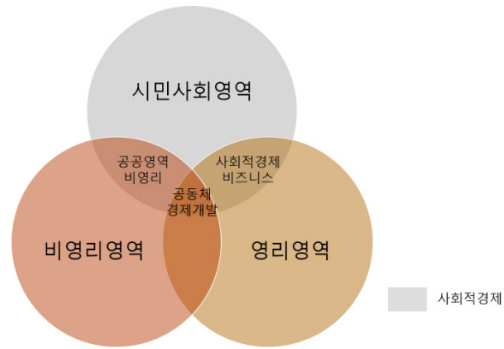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 회원들로 이루어진 아시아Y청년포럼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라는 큰 틀 하에 '폭력, 노동시장, 성차별, 여성의 권리'라는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토론하는 형식이였다. 나는 노동시장 주제 토론에 참여하여 취업, 업무환경, 성별 직종분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테이블에 필리핀 청년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누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여성의 교육수준도 남성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직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에 따른 성차

별(임금격차, 경제소유권, 집안일 등)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경력단절 문제, 가부장제에 따른 성차별 문제 역시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존재한다고 느꼈다. 각 주제에서 토론한 내용을 종합하여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고, 후속활동으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릴레이를 통해 꾸준히 연대하자는 뜻을 정하기도 했다. YWCA 이외의 대학청년들과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며 함께 연대하여 사회와 세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시민운동과 사회적경제운동의 동행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는 "자신들의 미션과 실천에서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고 확고한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거나 또는 자신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수행하는 구매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조직들에 대한 교량적 개념"이라 정의된다.(Quarter, MookArmstrong 2009: 12-17) 출처 지역문화진흥원

시민운동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시민운동, 비영리시민단체가 약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과 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했던 권위적인 국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통치방식을 바꾸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2000.1) 등과 같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조직을 중시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권위적인 국가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식을 갖는 동시에 계층적 권익 향상이 아닌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참여 방식을 조직한 비영리시민단체에 가입하며 비영리단체가 약진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운동, 비영리시민단체는 건전한 시민의 일상적 활동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기대와 활동을 요구받게 되었다. 87년 이후 정치체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런 전국적인 공공선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주장형 시민운동이 각광받게 되었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런 대표적인 조직들이다. 주장형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등을 펼치며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갔지만, 여전

히 중앙집권적 구조에 대한 대응 활동 중심이 되었으며, 서구 선진국과 같은 다양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조직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운동 확장에 따른 사회-정치적 시민 주체는 형성되었지만, 일상생활과 경제적 영역에서는 재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IMF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적-경제적 시민 주체의 형성이 지체되었다. '시민사회 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은 기존 시민운동의 성과와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 아니라, 이런 불균형적인 구조 속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

1980년대의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등이 단순한 대응투쟁만으로는 빈민과 농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성 속에서, 1990년대부터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을 확대하면서 사회적경제도 한국사회에 부각됐다. 사회적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존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이 빚어낸 대량 실업과 빈곤 등 사회적 배제의 확대를 처방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되었다.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조직의 역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

는 전략이다.

농민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농민과 시민의 '일상적인 환경운동', '윤리적 소비' 등을 키워드로 하면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아 나갔다면, 도시빈민운동이 주도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척박한 상황에서 진퇴를 반복했다.

이후 사회적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면서 확장되었다. 2000년 자활운동의 제도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등 IMF 이후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대응 혹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과제가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의 자주적 협업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강력한 영리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와 그에 따른 경제관련 제도의 불평등한 상황은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

시민운동과 사회적경제, 동행의 원리는?


공유경제 이론가 자넬 오시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의 발전단계는 네 단계로 나뉜다. 1.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이고 비연속적인 공동활동으로 확산 2. 연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민단체 형성 3.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 4.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주목한 정부가 이를 지원하거나 확산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건전한 시민들의 활동이 연결되어 비영리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비영리시민단체의 경제적 활동이 발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성과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다시 더 많은 건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는 것이 공유도시 정책이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비영리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연속적인 발전경로에 함께 있는 것이다. 비영리시민단체는 자신의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로 발전하려는 전망을 가져야 하며, 시민 없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적경제는 시민운동과 공동체운동과의 연계성을 높여 시민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YWCA운동과 사회적경제의 행복한 만남

YWCA는 다양한 비영리시민단체의 경제적 연계를 통한 풀뿌리 시민운동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사회적경제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노력만큼 큰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일례로 YWCA는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을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돌봄사업은 2-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드는 데 그칠 뿐 정부정책을 견인하거나 관련운동과 사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대기업의 플랫폼시장에 돌봄노동자와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YWCA만의 한계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시민운동과 사회적경제의 전체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다.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요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확장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일상적 공간의 시민운동이 사회적경제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만들어지면, YWCA의 그동안의 활동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상이 된 우리시대에 걸맞는 YWCA내 전략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

건전한 시민들의 일상적 연대를 묶고, 그들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만남을 더 촘촘하게 조직하여 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 지속가능한 YWCA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사회 에너지전환과 나아갈 방향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위 부안군 태양광발전소
아래 고창-부안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시설

박근혜 정부 탈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던 2017년 초, 우리는 ‘이제는 탈핵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탈핵’을 성공시키고 ‘탈핵’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같았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원전확대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운동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에서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추진하던 신고리 5, 6호기 반대운동으로 확대된 ‘탈핵운동’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렸다.

필자는 한국에 운영 중이던 원전이 10개일 때 반핵운동을 시작했지만 거의 매년 1-2기씩 늘어나는 원전확대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규원전을 반대하는 운동은 1998년 전국적인 신규원전부지 백지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지 앞에 ‘신’을 붙인 신규원전 부지 지정에서는 철저히 패배했다. 신고리 부지 선정을 저지하려던 운동이 울산 시민운동과 진보정치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결국 패배했던 2002년, 회로애락을 같이했던 현장의 주민들은 그곳에 남겨졌고 우리는 떠났다.

다시는 신규원전 반대운동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발전했고 결국에는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저지하려는 전국적인

행동으로 확대되었다. 반경 340만명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인 신고리 5, 6호기는 ‘탈원전’ 공약을 채택한 현 정부에서 건설허가 난 지 1년 만에 중단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을 가장 선호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은 6가지로 요약된다.

1. 단계적인 원전 감축으로 원전제로 시대,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2. 석탄화력발전 감축과 천연가스발전 비중 확대 3.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 20%로 확대 4.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 5.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 6.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

여기서 ‘원전제로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화석연료 논의가 부각되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은 감축할지언정 ‘제로’를 얘기하지 못했지만 원전은 ‘제로’를 지향한 것이다.

대선 직후 첫 번째 정부 차원의 큰 정책 행사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여부 공론화’에서 전략을 압도해버린 민주적 절

차는 ‘탈원전’을 표방한 정부 내에서 ‘탈원전 세력’에게 패배부터 안겨줬다. 그 이후 6기 신규원전 취소 결정과 탈원전 로드맵은 별 감흥이 없었다.

동시에 10-11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었던 원전확대 폭주 정책이 바로 ‘제로’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는 만만치 않았다. 건설 중인 5기 원전은 두고 계획단계였던 6기 원전을 취소하는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원전 설비는 늘어나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 결정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양쪽 모두의 저항에 부딪혔다. 여전히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탈원전’이라는 주장은 기만이라는 비판의 한편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신규원전 주요 설비를 준비한 두산중공업과 공급망 업체들은 정부의 정책변화의 피해자이며 이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 4호기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자력계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 역시 신규 2기만 가스발전으로 전환되었고 7기의 석탄발전은 그대로 추진되어, 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그 사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자유화된 전력시장 속에 방사능오염, 핵폐기물, 안전비용이 증가한 원전은 비싸고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어버렸다.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 기후변화로 인해 석탄발전은 자연스럽게 퇴출의 길을 걷는 한편,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은 이제 시민들과 정부정책 지원과 보조금에서 벗어나 어떤 발전원보다 경제적인 발전원으로서 빠른 속도로 관련 시장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산업의 경우, 설비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단가는 급속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심지어 총 투자비가 정제 또는 감소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실상을 모르는 원전 추종자들이 태양광발전 산업이 움추러 들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게 할 정도다.


재생에너지는 대세를 넘어 재생에너지 100% 전력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체계가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100%로 상품을 생산하겠다는 기업들이 세계

적으로 200여개에 이르러 납품업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최종에너지의 20% 정도인 전력분야의 재생에너지 공급에서 나아가 최종에너지의 80%인 수송과 열에너지, 산업분야의 탈탄소화가 추진되고 있다. EU에서 도입이 적극 검토 중인 ‘탄소세’는 에너지 분야가 생산과 소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전환 20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과 경제 판도가 변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공급정책은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충실히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한국인 1인당 전기소비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1.5배 가량 많아지게 되었다. 당장 싼값에 석탄발전과 원전설비를 확대한 결과, 원전과 석탄발전량 비중은 80%까지 늘어났다. 한국이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원전과 석탄발전설비가 가장 많고, 핵폐기물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반면,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전기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불명예와 함께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갖게 했다. 지난 수십년간 전문가들이 경고해 온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나무와 숲과 갯벌을 보존하고 그에 갇혀 있는 생명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구전체의 기온 상승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을 막고 기후위기를 늦출 방법은 에너지 전환밖에 없다.

‘에너지전환’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태양광, 풍력발전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효율기술과 절약 문화를 통해 소비를 줄이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이 싫다면, 기후변화가 위기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려면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누가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다. 



한반도에큐메니칼 포럼 참가자들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지난 7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에 한영수 회장, 최수산나 부장, 그리고 한미미 세계YWCA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주최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그리고 세계 교회들이 만나는 자리로, 매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왔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 교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세계 교회들의 헌신과 참여는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의 협력에 힘입어 남북의 적대적 상황에 대해 기독교적 차원의 평화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왔다.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1981년 서울에서 열린 한독교회협의회는 '죄의 고백과 새로운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NCKK 통일문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비엔나에서는 북측과 해외동포 기독교인들의 대화가 열리기도 했다.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개최된 에큐메니칼 회의를 기점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슈는 세계 교회들이 관심 갖는 영역이 되었다. 1986년 WCC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을 스위스 글리온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분단과 그로 인한 상흔을 보듬지 못한 서로의 죄책을 고백하는 성만찬의 예배를 뜨겁게 나누었다.

성만찬은 세례와 더불어 모든 기독교 교단들의 핵심적 성례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상징한다. 이 날 남북 교회 지도자들이 스위스 글리온에서 주관한 성만찬은 이념과 사상을 넘어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고 결단하는 순간이었다. 그 후 해외의 교계 지도자들은 국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며, 다양한 대화와 화해의 결과물로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왔다.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 출범 배경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이라는 공식기구가 생긴 것은 2006년의 일이다. 북한은 1995년 이후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고난의 행군 시대로 접어들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식량과 의약품 등으로 긴급구호사업에 적극 동참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2004년 독일 아놀츠하인 국제협의회와 2006년 한국 아카데미하우스 국제협의회에서 대북지원 공동협력 컨소시엄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6년 12월 홍콩에서 한반도 에큐메니칼 컨소시엄으로 발족되었으나, 북한의 사회개발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목적 하에 논의됨이 중요하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명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규약 (The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으로 확정되었고, 약칭해서 '한반도에큐메니칼 포럼(EFK)'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아시아교회협의회(CC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 이하 조그련), 그리고 각 나라의 NCC와 교단, 개발 기구들이 연합하고 있다.

남북 주도 성명서 발표

올해 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EFK)은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본 일정에 앞서 남북교회를 통한 지원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과 조그련 회담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어느 때보다 한국 측 참석자가 많았다. 그러나 민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수월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모든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걷고 있다. 포럼이 진행되기 한 주 전인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무 협상 소식은 없으며, 북측은 남한의 민간협력 요구들에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서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상호 합의하는 남북 주도의 커뮤니케이션(성명서)을 만들어 내었고, 이는 세계 교회들의 협의를 통해 전 세계의 교회들에 공개되었다. 합의 내용은 민족 자주, 평화 증진, 북미정상 회담 이행, 유엔제재 철회,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한국전쟁 70년인 2020년 워싱턴과 세계 각지에서 화해와 평화 예배 행사 등 구체적인 행동들까지 포함한다.

마음의 통일을 경험하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만남은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통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조그련은 김일성의 요청으로 1946년 설립된 북측 정부가 인정하는 기독교 단체로서, 초대 강량욱 위원장은 김일성의 외종조부이다. 김일성의 외가는 기독교 집안이었으며, 현존하는 칠골교회의 원래 명칭은, 모친 강반석의 이름을 딴 반석교회였다. 현재 조그련의 강명철 위원장은 강량욱 목사의 손자이며, 조부, 부친을 이어 3대째 조그련에 몸을 담고 있다. 포럼의 개회 예배에서 남북의 기독교인들은 강명철 위원장이 가장 즐거하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를 손 맞잡고 불렀다.

매해 부활절과 8.15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그련은 공동 기도문에 합의하고 하나의 기도문으로 예배드린다. 북한에는 봉수, 칠골교회를 비롯하여, 건물이 없는 가정 교회들이 현존하고, 비공식으로는 지하교회의 존재도 추정된다. 해방 전 뜨거운 기독교 성지로서 YWCA, YMCA와 같은 기독교 사회운동도 활발했던 이북은, 분단과 함께 기독교인의 숙청이 대대적으로 발생했다.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이들, 용인되지 않는 사회에서 신앙을 이어온 이들을 단지 정치적인 행위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기독교는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의 문을 열었고 확장시켜왔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의 기초가 되었으며, 1994년 기독교단체들의 '남북인간띠잇기'는 2019년 '4.27 민(民)+평화손잡기'로 이어졌다. 한국YWCA의 평화운동은 1983년 정오기도회로 시작하여 북한어린이돕기, 평화교육, 그리고 탈북민과 한민족을 넘어서 국제여성들과의 교류 협력으로 지경을 넓히고 있다.

스위스 작은 마을 글리온에서 눈물로 뜨겁게 만났던 그 만남이 지금 남북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듯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한 평화의 뿌리는 진정한 만남, 벽을 허무는 대화와 교류, 그리고 평화체제가 이 땅에 열매 맺어지리라 믿는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4월 18일(목) 변호사회관에서 '고소남발 김기덕 감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감독은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형사 고소, 지원단체인 민우회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와 MBC <PD수첩>에 대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출처 데일리안

이하나

여성신문 기자·연합회 미디어소통위원

“우리는 꽃뱀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다.”

지난 7월 9일 배우 강지환씨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사건 전말이 알려지자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요지는 두 여성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강씨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소위 ‘꽃뱀 프레임’이었다.

꽃뱀 프레임은 피해자의 고소 뒤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으리라 불신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 놓는다. 두 여성뿐만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나는 꽃뱀이 아니다”라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성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기관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라는 뜻이다. 성범죄 암수범죄율은 87.5%(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달해 실제 발생하는 성범죄는 통계 수치보다 최대 6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는 현실이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누가 성폭력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나

2018년 미투 운동이 촉발된 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숨겨야 했던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또 다른 여성들은 그들과 연대하며 성폭력이 개인의 옷차림이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성차별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유독 성범죄 피해자들만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합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에 시달린다. 나아가 가해자들에게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한다.

미투 운동 확산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4개 상담소에서 진행한 3,484건의 상담 중 역고소를 우려하거나 협박 피해를 호소한 성폭력 사례는 17.1%(109건)였다. 미투 운동 등으로 성폭력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가해자의 역고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2018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서 “성폭력 무고가 전체 무고 사건의 40%에 달한다”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는 일이 잦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 유죄 선고는 단 6.4%

지난 7월 1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이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고 성폭력 무고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공식적인 성폭력 사건의 무고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과 연구팀 조사 결과를 보면, 2017~2018년 2년간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7만1740명으로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성폭력 피해자) 수는 556명에 불과하다. 성폭력 피의자의 약 0.78% 밖에 되지 않는다. 성폭력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되고(84.1%),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결국 성폭력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6.4%에 그친다.

무고로 고소당한 피해자 100명 중 94명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성폭력 피의자들의 ‘거짓 고소’로 무고라는 누명까지 쓴 것이다. “성폭력 무고죄가 가해자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강력하게 비난 받아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다?

죄 없는 사람이 허위 고소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의 역고소 남발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당한 무고죄 인지는 성폭력 처벌과 피해 구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해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도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성폭력 무고 사건 진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해,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가해자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전제하고 있다.

즉, 폭력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어도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등에 따라 저항을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 따질 때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아니라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면서 말하기를 결심한다. 그러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법 테두리가 정해놓은 성폭력에 대한 좁은 개념으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남용을 막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도록,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드는 법 체계부터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의혹, 고 장자연 씨 사건, 클럽 ‘버닝썬’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니즘 광장’을 열고 있다.



안사요! 안가요!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7월 한 달 간 대학·청년Y 회원들이 불매운동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인스타그램에서 불매운동캠페인을 펼쳤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에 대해 한국과의 자유무역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무역전쟁은 시민들에게까지 번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YWCA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학·청년Y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캐스** 아베가 왜 그런 발표를 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 툭텐** 애초에 일본에서 불합리한 방법으로 시비를 건거지.
- 모내미** 결국 이번 행동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전 환했다고 밖에 할 수 없지.
- 툭텐** 그런 와중에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깐 당황스러울 거야.

- 캐스** 지금 하는 불매운동이 오래갈까? 일본에 아무런 영향이 안 줄까봐 걱정돼.
- 툭텐** 오래갈 것 같아.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이 피해를 볼게 분명해. 우리는 대체소재를 이미 찾았고, 국제 여론도 우리 편이 많잖아.
- 모내미** 일본은 지금 매우 불안할 거야. 20년 전부터 일본 경제는 흔들리고 있거든.

- 툭텐** 맞아.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터지면서 엄청 혼란스러워.
- 모내미** 관광객 2위를 차지하는 한국인들이 줄줄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WTO 패소까지 했잖아.

툭텐 2020 도쿄 올림픽도 방사능 때문에 걱정 많을걸?

BOYCOTT JAPAN

- 캐스** 불매운동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잖아.
- 모내미**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예전 불매운동이랑 달라.
- 툭텐** 과거에 있었던 불매운동은 퍼포먼스 캠페인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실천하기 때문에 오래가고 타격도 큰 것 같아.

모내미 기업들 입이 방정이기도 하잖아. 한국은 불매 성공 못한다고 자신하더니 매출 떨어지는 것 봐. 꼴 좋지 뭐.

캐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을 걸러야 하는지 리스트도 공유해주고, 릴레이 캠페인도 하나씩 나까지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아.

모내미 일본 기업은 우익이든 아니든 일본 정부에다가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장사 하는거 알지?

캐스 몰랐어. 우익 제품만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젠 아예 안 써야겠구나.

다양한 불매운동

- 캐스** 우리 같은 일반인이 불매하는 것도 대단한데 기업들이 불매운동 하는 걸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
- 툭텐** 맞아. 회원이 133만 명이나 되는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가 운영중단까지 결심했더라고.
- 모내미** 신선한 것도 많아. 울산에 어떤 미용실에서는 일본 여행 취소한 인증을 하면 무료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어.

캐스 일식집이나 마트에서도 사케나 일본 맥주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는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해.

툭텐 최근에는 지방정부에서 일본 공무원출장도 중단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했대.

모내미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말이 유행이기도 하잖아.

캐스 나는 솔직히 일본제품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을 불매운동 이후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는 물건들인데 그동안 당연하게 일본 제품을 썼던 것 같아.

모내미 맞아. 대부분 사람들이 일본제품은 무조건 품질이 좋으면서 믿고 사잖아.

툭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기업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앞장서기

툭텐 나는 'NO일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도움되더라. 바코드를 찍었을 때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알려주고, 카테고리 별로 일본 기업 제품이 뭔지 알려주거든.

캐스 바코드 앞이 49, 45로 시작하면 일본 제품이래. 요즘 물건 살 때마다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모내미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 일본 물건을 사는 사람을 욕하지는 않아. 남에게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툭텐 일본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일본제품을 불매하는 건 맞지만 그 나라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돼.

캐스 맞아.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도 과거의 일본과 똑같아지는 거야.

툭텐 우리도 작게나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캠페인 하고 있잖아. 20대가 일본제품 사용이나 일본여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성명서

일본 정부의 반평화적 조치들에 대한 한국YWCA의 입장

한국YWCA는 시대적 불의와 차별의 역사를 넘어 이 땅에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내 10만 회원들과 더불어 아시아 및 세계YWCA의 회원들과 협력해왔다. 특별히 한·일YWCA는 양국의 침략과 고통의 역사를 딛고 평화적 관계를 통해 시민 차원의 다각적 연대와 공동 활동을 이어왔다. 일본의 평화 헌법 수호 활동, 공동 역사 연구와 청소년 교육, 그리고 탈핵 생명 운동 등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시민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

최근 일본 정부는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관련한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강제 동원 문제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로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다. 일본의 우익 세력과 아베 정권은 부당한 경제적 조치들과 주변국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행위들을 중단하여야 한다. 경제를 무기로 한 제국주의로의 회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더불어 한일 신뢰 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반평화적인 조치들에 대해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의 건강하고 양심적인 시민들은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힘들게 쌓아온 평화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고한 연대를 통해 아베 정권에 맞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헌법을 지켜낼 것이다. 또한 남북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주의적인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통한 상생과 번영의 체제로 나아가길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 관계에서 주체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의 길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 위해 힘을 쓸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치유와 평화의 길을 열어온 풀뿌리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민들의 연대와 공동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일본,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YWCA 회원들과 더불어 정의의 역사를 세우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더욱 헌신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2019년 8월 8일

※ 일본YWCA는 8월 6일 아베 수상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과 더불어,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YWCA는 일본YWCA의 정의로운 연대에 대해 감사하며 한일 시민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 강화를 표명한다.

4차 산업혁명,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종관 교수가 <인간의 미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7월 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제1차 YWCA 미래가치포럼이 열렸다. 김은주 위원장(미디어소통위원회) 진행 이종관 교수가 <인간의 미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을 주제로 강의했다. 제1차 포럼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신는다.

인간, 창의성, 미래에 대한 예비적 성찰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다. 대체 사람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무엇과도 또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독보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모든 인간의 탄생은 기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 인간적인 미래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생각해야 한다. 창의성을 논할 때 길잡이가 되는 인물이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discover)하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눈은 근원을 향해가는 귀환의 길에서 탄생한다.” 근본적인 것은 이미 드러나 있으나 한 시대의 상식, 편견에 사로잡혀 가려져있을 뿐이기에,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이 드러난다.

미래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라는 시간이 열리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시간으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기원한다. 희망과 기대를 품는 인간에게만 미래라는 시간은 존재한다.

인간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비전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비전-인공지능의 아바타, 죽지 않는 포스트휴먼,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이 있다. ‘인공지능의 아바타’로서 인간의 미래는 알파고와 함께 이미 그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이 대결에서 인간의 미래를 보여준 것은 알파고 대역 아자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역할을 맡았고 따라서 행동하고는 있지만 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 존재였다. 일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상당수 인간이 일을 잃고 무의미한 존

재로 전략하는 광경을 볼지도 모른다.

‘죽지 않는 포스트휴먼’의 인간 비전은 인간의 생물학적 몸은 도태되고, 첨단기술에 의해 완전히 성능이 증강된 인간 이후(post human)의 존재자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칼리코(Calico)라는 바이오 기업을 창업해서 인류가 500세까지 살게 하는 기술을 발명하는 ‘칼리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이자 구글과 나사(NASA)가 지원하는 싱클레리티 대학 총장이며 1960년 이후 인공지능 개발에 참여한 인지과학자 레이 커즈웨일에 의하면, 2045년이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것이며 스스로 사고하는 컴퓨터에 의해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들과 결합해 ‘포스트휴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알파고를 개발해낸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총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죽음을 인정하면서 본래적 자신을 향해 사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는 비전은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인간에 가깝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레이 커즈웨일은 죽음을 결합으로 본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 미래 비전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네오휴머니즘(Neohumanism)으로 존재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테크노퓨처리즘에 입각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재를 질적으로 혁신한다는 과학기술 결정론적 입장이고, 네오휴머니즘은 인간의 실존적 허무화에 직면하여 인간존재의 의미를 재확보하려는 사상적 움직임이다. 전자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 조건을 혁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후자는 ‘이제 보다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다’라고 본다.

오늘날 이 두 비전은 현실에서 전자기기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구글은 증강인류 추구, 구글 글래스를 개발했다. 이



옛 도심의 건축물 등을 유지한 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구글 글래스는 초기에 각광을 받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인간의 눈을 기능적으로 렌즈로 접근한 오류다. 반면 애플은 다른 접근을 취했다. 기기보다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채택했다.

두 비전이 도시에 적용되면 트랜스휴머니즘은 현재 추세대로 대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게 된다. 아파트의 초고층화, 드론 배송의 보편화가 미래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스마트 시티는 과거의 귀중한 유산을 현재적으로 재해석해 미래에 전승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옛 도심의 건축물 등을 유지한 채 실시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접목한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Smart City)없이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불가능하다. 스마트 시티란 지능적(intelligent)이 아니라 지성적(intellectual)으로 깨어나서 공동체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인간이다. 그들을 통해 현재가 좋은 역사로 미래에 계승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일: 트렌드와 문제점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융합과 연결이 주가 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 존재를 질적으로 혁신한다는 과학기술결정론 입장에서 건설하게 될 대도시 중심의 스마트 시티

되는 초연결성, 연결에 따라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초지능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측 가능성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은 20세기 후반부터 출현한 정보화 기술 즉 IT임이 분명하다. 인간, 기계,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두뇌는 인공지능으로, 더 이상 인간의 역할이 필요 없는 산업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에 일자리 논란이 일고 있다. 일자리 논란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일은 깨달음의 근본적 형식이자 세상을 직접 참여하여 깨닫는 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일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가며 지혜를 체득한다. 삶의 주인이 되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일은 인간의 삶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은 나와 타자가 함께 이루어내는 사회적 융화활동이다. 나와 타인의 공지에 찬 협력으로 진행되는 일은 끊임없는 공감의 성취 과정이며 창의성의 원천이다.

인간만이 일(work)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다만 작동(function)할 뿐이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인간에게서 일을 빼앗아 미래라는 시간을 증발시키고 몸을 무력화하여 중독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래 기술에 대해 새로운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준에서 눈여겨 볼 기술이 적응형 자동화(adaptive automation)이다. 이는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자동화(full automation)와 달리, 인간을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인간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기술발전의 방향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과 인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기술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봇 개념을 코봇(Cobot)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공장설비의 무인화보다는 인간을 일의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로 로봇 역할을 한정하려는 시도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핵심 의제로 선정되면서 처음 공론화된 개념이다. 그러나 독일은 2011년에 이미 ‘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정부의 슬로건은 ‘연대와 정의, 협력과 복지는 오직 공동으로만 성취된다’이다.

4차 산업의 기반인 Internet of Thing은 Internet of Human이 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은 결과가 아니라 더불어 기획해가는 과정이며, 기술 혁명이 아닌 인간과 사회를 위한 진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1988년 건립된 평양봉수교회

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

박혜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원

제4차 길 위의 평화포럼이 7월 18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김혜경 위원(평화통일위원회)이 진행을 맡고 박혜진 연구원(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 '근대사 속 북한의 기독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다

중국의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 초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복음화에 힘쓴 분들이 있다. 1870년대 초 만주에 있던 존 로스와 존 매킨타이어 선교사(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소속), 의주 중심 조선청년들이었다. 1879년 백홍준과 이용찬을 비롯한 4명의 한국인이 매킨타이어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로스를 중심으로 1882년 3월 누가복음, 5월 요한복음, 1883년에 사도행전을 간행한 후 1887년에 신약전서인 『예수성교전서』를 간행했다. 일본에서도 1885년 2월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가 간행되어 그해 4월 한국에 입국한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그 후에 내한하는 선교사들이 들고 왔다.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괴선교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갔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선교사가족, 대를 이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다

1887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개신교 선교사들이 개성, 평양, 의주 등 북한지역을 다녀왔고, 1890년대 초부터 내륙으로 진출했다. 캐나다 출신 홀(William J. Hall, 1860-1894)은 조선에 들어와 의료 활동을 하고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와 결혼, 1892년 평양개척선교사가 되었다. 남산현교회, 광성학교, 정의여학교에 이어 병원도 설립했으나 과로와 말라리아로 1894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이 평양에 기흥병원, 1898년 부인진료소 광혜여원, 이질로 사망한 딸을 추모하는 뜻에서 '에디스마거릿 어린이병동' 그리고 조선 최초 맹인학교를 시작했다. 아들 셔우드 홀은 1926년 의료선교사로 부임해 해주구세병원을 담당, 결핵요양원을 설립했다.

여성, 이름을 갖다

조선 여성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름 있는' 존재가 되면서 비로소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초기 전도부인 김세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를 다니며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했다. 개성 주루루 전도부인은 황해도 연백, 용진 등 각 지방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교회 여성을 지도했다. 이 여성들은 모든 변화와 축복의 원인을 그리스도에게 돌렸다.

평양대부흥운동,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다

북한의 개신교는 1900년대 초 부흥운동을 거치며 폭발

적으로 성장하였다. 1903년 원산교회에서 하디(R. A. Hardie)의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 교인들에게 확산되어 직접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서울, 개성, 평양, 인천 등지로 확산되었고, 부흥운동은 1907년 1월 평양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흥운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자, 일반 사회의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았다. 이것이 1919년 3.1운동 때 기독교 목사,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들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다.

105인 사건과 3.1운동, 기독교가 항일운동에 앞장서다

일제는 항일 민족운동 세력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선천, 정주, 광산, 평양, 개성 중심의 기독교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나자, 기독교 조직을 근거로 한 민족운동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자 하였다. 이것이 '105인사건'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하며 십자가와 순교의 신앙을 체험하였다. 이 때 옥고를 치른 많은 이들이 석방 후 목회와 사회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다시 전면에 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한국교회 여성지도자들로 하여금 항일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신사참배에 거부한 순교자들

1938년 2월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에 따라 교회에 대해 신사참배를 지도 강화하면서, 경찰을 동원해 교회, 노회, 총회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제 결의시켰다. 한국 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순응했으나 이 시기 북한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였고, 대략 2천여 명이 투옥, 2백여 교회가 폐

쇄되었고, 50여명이 순교하였다.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는 해방 후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앙,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국가와 교회에 대한 이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등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앙적 순결과 교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라는 절대권력과 대결했던 인물이다.

해방 후 북한교회사

1938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60만을 넘는 기독교 신도 중 약 75%가 북한에 있었다. 당시 신의주, 의주, 선천, 정주, 영변, 평양, 강서, 진남포, 선천, 재령 등 도시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충돌


이 그만큼 치열했다. 해방 후 김일성은 기독교를 포섭하고자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종교탄압, 종교말살을 꾀했다. 1970년대 종교활동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자 1972년 평양신학원을 개원하고, 1987년까지 20여 명의 교역자를 배출했다. 1974년 이후 조선기독교도연맹(조기련)이 중단했던 외무활동을 시작했다. 북한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988년 1월에는 봉수교회, 11월에는 장충



선교 초기 여성교사와 조선의 아이들(1890년대)
여성교사들이 새운 여자학교를 통해 우리 여성들은 조금씩 복음에 눈뜨게 되었다.

선교 초기 여성교사와 조선의 아이들(1890년대)

성당이 문을 열었고 1992년 말 김일성의 외할아버지인 강돈욱이 시무장로로 재직하고 어머니인 강반석이 자라며 다녔던 칠곡교회를 재건했다. 김일성 자신도 어렸을 때 이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조그런(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북한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지하교회'도 존재한다. 한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 관계가 최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YWCA 재건과 향후 북한 기독교여성들과의 교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8월의 크레파스, 군산

이수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지역에 청년이 있다, 청년이 있다

2019년 대학·청년YWCA전국회원대회가 8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군산YWCA 및 군산시 일대에서 진행됐다. '회원 YWCA내실화'를 2019년 전국운동주제로 결정한 대학·청년 YWCA는 '지역에 청년이 있다, 청년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회원대회를 열었다. 13개 지역(거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수원, 여수, 울산, 전주, 진주, 청주)의 대학·청년 YWCA 회원 및 담당 실무자 41명이 참여했다. 특별히 군산 YWCA 이미순 운영위원장, 김형남 지도위원을 포함하여 서부지역위원회 권경미 위원장, 전주YWCA 임경진 사무총장, YWCA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박은실 국장이 참가하여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원대회는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려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크레파스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크레파스 캠프는 군산YWCA에서 여는 예배와 함께 군산YWCA 이미순 운영위원장의 '군산 동네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오후에는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과의 사람책방이 열렸다. 둘째날에는 군산 구시청광장에서 3·1운동 100주년 및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플래시몹을 펼쳤고, 역사와 오래된 이야기를 지닌 공간을 미션을 풀며 다니는 조별 필드트립을 진행했다. 필드트립 후에는 '8.15 사진콘테스트'와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청춘텐트'가 이어졌다. 캠프의 마지막은 그림일기대회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함께 기록하고 기억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을 위한 청년들

현재 군산에는 지역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YWCA 청년 팀이 앞의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YWCA 청년팀인 Y-LAB(와이랩컴퍼니)은 프로젝트를 통해 YWCA가 약 100년 동안 지녀온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지속가능한 YWCA청년모델 개발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사람책방을 통해 만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의 다른 창업팀들 또한 지역과 사회를 위해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혁신가로서 살아가는 청년 창업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유빈 여수YWCA 회원은 "기존의 취업 프레임(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고)을 깰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억하기 위한 노력

광복절이었던 8월 15일 둘째 날 아침에는 3·1운동 100주년과 8.15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원도심의 중심이었던 구시청광장 잔디밭에서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 맞춰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플래시몹에 참가한 청년들은 3.1운동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고,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눈빛으로 청년들과 함께하며 응원했다.

조별 필드트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플래시몹은 끝나지 않았다. 동국사, 군산세관, 영화타운, 짜보선창 등 조별로 군산의 의미있는 장소를 돌아다니며 플래시몹은 계속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장면 장면이 연결된 플래시몹 영상을 전국회원대회 마지막 날에 함께 시청하면서 청년들은 다시 한 번 역사를 기억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노력을 확인했다.

청춘을 이야기하다

회원대회가 무르익은 둘째날 밤, 모두가 22살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청춘텐트'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청춘텐트를 위해 청년들은 본인의 가치관은 물론, 상대의 가치관 또한 존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 연애로 가볍게 시작된 청년들의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와 청년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낭만 없이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 크레파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그림일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캠프기간 동안 청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사람,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 청년들은 그림일기를 그리며 걱정

이나 책임감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갔다. 서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담임선생님처럼 맞춤법에 따라 문장을 고쳐주면서 나오는 활기찬 웃음 소리들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뽀뽀뽀뽀적인 글자 안에는 2박 3일간의 청년들의 추억이 묻어있었다.

낭만을 찾아가는 YWCA청년들

누구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누구는 취업을 위해 누리지 못할 여름방학을 대학·청년YWCA는 뜨거운 햇빛이 비추던 8월의

군산에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과 웃음을 쏟아냈다. YWCA 청년이기에 그럴 수 있었다. 사람책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년을 만날 수 있었고, 나 또한 사람책으로 나를 나눌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었다. 필드트립을 통해 아픈 역사를 배우고 직접 발로 걸으며 기억했다.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간 우리 청년들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도록 행동하고, 크레파스 캠프로 진행된 전국회원대회를 통해 보고 느낀 것을 다른 청년들에게 전함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YWCA에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YWCA



대학·청년YWCA 전국회원대회 단체사진



군산 구시청광장에서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군산의 근대역사거리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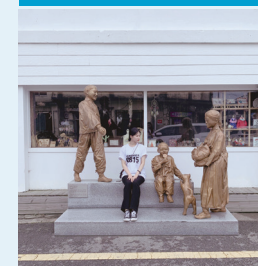


8.15광복절을 기념하며 태극기를 그리고 있다.



전국회원대회의 추억을 그림일기에 담고 있다.

사진콘테스트 출품작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만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예의는 있다



인도네시아 크리스타 미트라 학교 앞에서 찍은 단체사진

류한비

목포YWCA Y-틴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7월 27일(토)부터 8월 1일(목)까지 2019 Y-틴 드림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청소년 20명이 참여했다. Y-틴의 글로벌 리더십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키다리학교(키우자 와이타운 리더)' 운영방식에 따라 양국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지난 3개월 간 한국YWCA 청소년 10명과 인도네시아 크리스타 미트라 학교 학생 10명이 온라인 논의과정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시행했다.

다른 언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와 한국 학생 두 명씩 총 네 명이 한 팀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같은 Y-틴 끼리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언어가 다른 우리가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핸드폰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3개월 동안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잘 해내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담당자라는 책임의식이 생겼고,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래서 현지에서 실제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른들과 YWCA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김기동 선생님(전 연합회 실행위원)과 인도네시아 크리스타 미트라 학교선생님들께서도 현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청소년, 같은 차별, 같은 고통

첫날 우리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의 차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는 곳도 다르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험도 다를 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같은 반 친구들이 이야기하듯 너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서 슬픈 마음이 들 정도였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가정과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여성 특히 청소년들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여성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 이전에 여성다운 외모와 태도

를 요구당하며 우리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는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악을 권유받았고 짧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여성의 고통에 대해서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고, 우리와 같은 소녀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우리는 스마랑 암바와라 지역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초소에 다녀왔다. 그 시대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초소는 허름하고 사람이 지냈던 곳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의 상황은 영화와 책으로 많이 봤지만, 막상 그 현장을 찾아가보니 참담한 고통이 느껴졌다.

스마랑 암바라와 위안부 초소를 다녀오고 나서 '왜 여성은 모든 상황에서 최약자로 전략하는 것일까?'라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성을 전쟁의 성노예로 동원시킨 일본정부는 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가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이어갔다.

Girl,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는 3박 4일간 홈스테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이슈를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음식을 만들며 문화교류도 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로부두르 유적지에도 함께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스마랑 지역에서 현지 여성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한국인 기업 PT HESEDE에도 다녀오고,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체험으로 바틱으로 손수건 제작을 해보기도 하고, 물놀이를 했다. 모든 활동이 재미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홈스테이하며 인도네시아 친구 집에서 지내며 경험한 것들이다. 밥을 먹거나 자기 전에 친구 부모님께서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4일간의 프로그램 중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꿈꾸는 세




청소년으로 살면서 경험한 성차별 이슈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에 대해 기획하는 것이었다. 다시 각자의 나라와 지역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5개의 팀이 각자 모여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5개의 팀별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리의 청소년 이슈를 모아 지역사회에 알리기, 주변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신고하기, 우리의 활동을 담은 SNS 해시태그 이벤트, 성평등 포스터 만들어 각 학교에 붙이기, 성평등 애니메이션 또는 영상만들기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 투표를 통해 SNS에서 캠페인 하기, 지역별로 동영상(UCC)을 만들어서 제작하기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는 것 등이 선정되었다. 이 활동결과물은 11월 사후모임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일정이 마치고 헤어질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웠다. 그리고 이 아쉬움이 그냥 여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속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라와 사는 곳은 다르지만, 여성으로서 청소년으로서 같은 고통을 갖고 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Y-틴 드림십 프로그램이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우리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지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슈를 이어갈 것이며,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재미있게 우리의 일들을 꿈꿀 수 있다고 믿는다. 



히로시마 원폭 돔 앞에서

우리가 평화가 되자

신연진
2019 Y-틴 전국협의회 회장·동해YWCA Y-틴

일본YWCA 주관 '히로시마 평화순례'가 8월 7일(수)부터 11일(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 동아시아 평화구축 비전을 공유하고 젊은 지도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YWCA 청소년 대표로 신연진(동해Y), 김현정(대전Y), 이소향(진주Y) 3명과 천유란 연합회 활동가가 참여했다.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제국주의 지배에 반성 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무역을 제재하는 경제적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었다.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을 구입하지 않음으로서 일본의 행동을 반대하는 불매운동도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가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질문과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까?”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5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얻어왔고,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청소년보다 못한 일본 정부

히로시마 평화순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내용은 1954년 8월 6일 원자폭탄으로 인한 히로시마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평화순례에 참여한 일본청소년들이 자신의 국가가 전쟁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로 히로시마 평화순례 박물관이나 기념비에는 일본이 전범국으로 자행한 내

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YWCA에서 초청한 원폭피해자 증인 에그사(91세)씨는 참담한 원폭 증언 후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핵폭탄의 피해를 입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입었지만, 우리 일본은 과거에 전범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정권은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많은 일본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일본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으며, 심지어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 번 평화의 희망을 짚어냈다.

한국YWCA와 일본YWCA의 자매애

일본으로 떠났을 때 가장 걱정되던 것 중에 하나는 ‘혐한’으로 인해 현지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 달리 일본YWCA 활동가들과 일본 전역에서 모인 178명의 일본친

구들은 우리를 반겨주고 환영해 주었다.

특히 국가별 발표시간에 우리는 ‘평화적 연대’라는 주제로 과거, 한국과 일본이 과거 폭력과 억압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연대해 왔는지 이야기했다. 조선YWCA 설립 시 일본이 허가했던 일,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연대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일, 역사왜곡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일 특히 세계YWCA에 ‘탈핵과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결의문’을 보낸 일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일YWCA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대해야 하며, YWCA 기독교정신과 박애정신, 자매애가 계속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체 일정 동안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도 그곳에서 필요한 물품 이외에는 아주 싼 물건이라도 구입하지 않았다. 아기자기한 물건을 보았을 때 사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 마음을 참는 우리의 작은 인내가 평화를 이룬다는 설명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일본친구들이 우리 마음이라며 작은 선물들을 전해줬다. 일본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준 친구들을 만나서 감동이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겨줘서 고맷웠다.

청소년들도 역할이 있다

첫날 저녁 국가별 발표가 있었다. 국가별 발표 이후 일본 참가자들이 많은 격려와 감사인사를 했다. 특히 한 친구는 밤에 숙소로 찾아와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온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베정권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 일본 친구는 “뉴스에서 말하기를 한국정부가 먼저 외교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정권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일본이 전쟁 때 했던 잘못들을 이야기 해주며, 아베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히로시마 평화순례 참가자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 역사왜곡 등 전범국으로서 책임져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을뿐더러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일본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우리의 진실이 잘 전해질까 걱정했으나 다행히도 잘 이해해 줬고, “일본정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설명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어서 기뻐고, 일본사람들과 일본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평화가 길이다

우리는 히로시마 평화순례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보았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우리와 같은 평화로운 만남이 계속 생겨나야 한다. 아마도 우리는 만나지 않았으면 서로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혐한’이라는 편견에 갇혀 일본사람들을 계속 무서워하고 싫어했을 것이고, 우리를 만난 일본친구들은 한국은 약속도 지키지 않은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났기 때문에 함께 웃으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약속했다. 서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주변에 알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되자고 약속했다. 히로시마 평화순례를 다녀오며 우리는 각자 평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미 있는 숙제를 받아왔다. 



2019년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 참가자들

2019년 Y-틴 지역별 회원대회가 하동, 전주, 대전, 용인(동부, 서부, 중부, 북부)에서 열렸다. '청소년 진로'를 주제로 각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Y-틴 선배인 최선화 대학-청년Y 회원이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에 참여 후 활동을 정리했다.

최선화

수원YWCA 대학-청년Y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는 8월 5일(화)부터 6일(수)까지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에서 'SET OUR DREAM'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북부지역(강릉, 수원, 인천, 안양, 안산, 동해, 의정부, 성남, 서울Y)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0년 만에 1박 2일로 열렸다. 권우영(Y-틴 북부지역협의회 회장)과 김연우(총무)의 진행으로 회원대회가 시작되었고, 윤경진 위원(연합회 Y-틴위원회)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있잖아, 너의 가능성은 충분해

Y-틴 회원대회에서는 해마다 플래시몹을 펼쳤다. 올해는 단순히 플래시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촬영하기부터 편집까지 전 회원이 참여했다. 음악도 자신들만의 길을 가라고 응원해주는 내용을 담아 소녀시대의 '힘내'를 개사했다. 개사, 녹음은 수원/안산/동해Y가, 안무는 안양Y 이금란 친구가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북부지역 Y-틴 친구들은 각자 조별로 모여 플래시몹 안무를 짜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별로 개성 넘치는 안무를 가지고 한국 민속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영상 찍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자신들이 직접 영

상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Y-틴 친구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플래시몹 노래 가사를 보면 "사람들은 모두 재촉해 더 빨리 더 많이" 라는 부분이 있다. 청소년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어른들은 그저 더 빨리 진로를 정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Y-틴 친구들은 "불안해 하지만 너는 정말 잘 해내고 있어!" 라고 말해주며 자신을 위로하고 친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긴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른들이 응원하는 Y-틴 축제

북부 Y-틴 축제는 각 지역 회장님, 이사님들의 축하영상으로 시작했다. 청소년들은 혼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응원해주는 어른들을 만났으므로 더 큰 지지를 얻고 힘을 얻으며 축제를 시작했다. 축제 진행에는 Y-틴의 최고참인 고3 친구들이 후배들을 위해 머스타드와 케찹을 입고 등장했다. 다양한 끼를 보여주며 공부와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었다.

청소년의 꿈, Y-틴의 미래

회원대회를 진행하며 우리들의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몇 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상처받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정부Y 허지수)
2.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안양Y 이금란)
3. 투자자들이 저의 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최대한 이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입니다. (수원Y 김현중)
4. 진로가 없는 친구들에게 꿈을 찾아가게 해줄수 있는 Y-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서울Y 박규보)
5. 환자가 웃으면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해Y 신연진)
6.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뷰티브랜드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성남Y 김호경)
7. 여자는 약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편견을 넘어서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강릉Y 한정우)
8.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인천Y 김노아)
9. 꿈이 장래희망이여야 하나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한다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며 사람도



단체 플래시몹 촬영을 하고 있다

만나고 다양하게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하고 싶어요. (안산Y 박진희)

함께해서 즐거운 Y-틴 회원대회

Y-틴 활동을 하며 우리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는 Y-틴 회원대회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끼를 펼칠 수 있고, 지역별로 중점운동을 어떻게 펼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오랜만엔 Y-틴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고, 전국단위의 동아리라는 자부심도 확인할 수 있다. 어른들의 격려를 받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일정을 보낼 수 있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시원한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축제이다. 청소년이 주인이 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오고가는 Y-틴 회원대회는 앞으로도 온전히 Y-틴만의 색깔로 채워질 것이다.

동부지역 Y-틴 회원대회

7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하동군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했다. "우동 부탁해요(우리동부 부탁해요)"를 슬로건으로 진로선택을 위한 성향분석, 레크레이션, 플래시몹(내꿈은 내가 정해), 나도 K-POP STAR, 직업도서관, 도전 골든벨 등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바라보는 이미지, 타인과의 관계성향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직업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과 미래직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

8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전주JK유스호스텔에서 진행했다. "나는야 119(한사람이 한 생명을 구하는 어벤저스)"를 슬로건으로 8개 지역 Y-틴 회원들이 교류하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119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재난종합체험활동을 하며 재난 관련 직업에 대해 알고 비상시 실천방안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중부지역 Y-틴 회원대회

8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대전YWCA와 옥천향수들권역에서 진행했다. '만반중부(만나서 반가운 중부Y-틴)' 슬로건으로 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진로를 위해 구체적인 직업군을 조사하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별 활동을 공유하고 하반기 중부지역 Y-틴 활동을 계획했다.

역사와 기억을 둘러싼 싸움의 주전장은 어디인가

이윤숙

연합회 정책기획국 부장



영화 <주전장>
감독 미키 데자키 / 121분 / 미국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징용배상판결에 보복한다는 일본의 비열한 경제조치에 온 국민들이 폭풍 같은 분노의 다짐을 하고 있는 이때, 그 결의를 바위보다 더 굳세게 해주는 영화가 개봉했다.

확연하게 환기시켜준다. 말하자면, 이 카메라의 시선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거만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주장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일본회의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일본군성노예 역사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강히 부정하려 하는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준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선한 나라이며 아시아를 침략한 게 아니라 보호한 것”, “한국은 시끄럽게 구는, 버릇없는 꼬마처럼 귀여운 나라다” 등의 어처구니없고 오만한 그들의 말과 얼굴을 보고 있으면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게 밀려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위험한 일본극우 역사수정주의자들과 벌이는 치열한 전장 한 가운데 있다는 엄중하고 비장한 감각이다.

역사왜곡과 망언, “그들은 합법적인 매춘부였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미키 데자키는 일본계 미국인이다. 올 4월에 일본에서 개봉을 한 후 그는 일본우익들에게 끊임없는 테러 협박을 받아왔다. 일본계 혈통이지만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그는 고국에서 영어강사를 할 때 일본의 인종차별 현실을 주제로 만든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일본우익들로부터 이미 살해 협박을 받은 경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보도한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도 비슷한 협박과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극우들은 위안부 문제에 왜 그토록 민감해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이 다큐멘터리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 영화에는 30여 명에 이르는 논객들이 등장하는데, “일본군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걸 저는 바로 직감했

습니다.”, “일본 사람 대부분은 이런 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라는 근거 없는 확신과 역사에 대한 무지, 일본우월주의에 입각한 신념이 판을 친다.

특히 ‘미국인’에 의한 발화가 더욱더 신뢰성이 높고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일본극우들에 의해 설득되고 포섭된 미국인들에 의한 주장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인 변호사이자 일본에서 방송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켄트 길버트는 “그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매춘부였습니다”라는 너무나 확신에 찬 주장을 하고, ‘텍사스 대대’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미국인은 소녀상 옆에서 “이 추악한 대형 쓰레기에는 종이봉투가 딱이다.” 라는 발언으로 못생긴 여성을 희화화하며 강간을 정당화시키는 남성문화의 충격적인 언설을 남발한다.

일본의 극우세력들이 특히 미국인들을 자기편으로 내세워 역사에 대한 왜곡과 수정을 일삼는 것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전세계적인 인권, 평화 이슈로 확산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정권을 지탱하는 일본회의 등 극우세력이 원하는 것은 또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를 가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이나 난징대학살 사실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책임은 더더욱 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역사를 지우고 부정하고 왜곡하여왔다.

이 다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싼 주된 전장은 지금 미국이라 상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미국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추진되고 2010년 뉴저지에 첫 ‘위안부’ 희생자 추모기림비가 세워졌고 2013년 글렌데일시에 첫 위안부 소녀상도 건립되었다. 일본은 이때 엄청난 돈을 들여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엔 5억 달러를 이 문제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책정하고 그들이 ‘주전장’으로 여기는 미국 내 대학과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로비자금을 뿌린 것이다.

일본성노예 역사를 지우기에 의해 아베정권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



(왼쪽부터) 역사수정주의의 대표자인 후지오카 노부카츠(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스키타 미오 자민당 소속 중의원, 미국 변호사이자 일본 방송인 켄트 길버트, 후지키 이치 매니저와 그가 맡고 있는 친일 미국인 유투버 토니 마라노 출처 중앙일보(사진 시네마달)


견서에서 소녀상 철거를 ‘핵심적 국가이익’이라고 표현한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영화 홍보를 위해 내한한 미키 데자키 감독은, “일본 아베 총리가 때마침 경제보복조치를 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화가 상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이즈음, “한국인들은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일본우익들의 모욕적 언사에 분노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쉽게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주전장>의 미키 데자키 감독은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것은 언젠가 그분들의 정의가 구현되는 ‘희망’을 뜻한다. 또한 인종차별, 성차별,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했다.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며, 기억을 부인하고 수정하려는 극우들과의 치열한 싸움터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적은 일본이나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 나르는 우리사회 내부에도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분노하면서 강간문화와 성차별 문제에 너그러운 우리의 남성중심 지배 문화 속에도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치열한 주전장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정의에 둔감하게 만드는 힘들, 즉 무지의 어둠과 무감각의 철벽과 싸우는 현장들이다. 


“위안부는 일본이 만들었다. 끝까지 사죄 받겠다”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중국·필리핀 세 나라 소녀가 정면을 보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고, 그 사이에 빈 자리가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맞잡고 있고, 그 사이에 빈 자리가 하나 있다. 조각가 스티븐 화이트 말처럼 방문객들, 살아 있는 전 세계인들이 남은 자리를 채워 기림비를 완성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동상은 2017년 샌프란시스코에 미국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현지에서 제작해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동상 제작부터 선적까지 일체 비용은 미국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김진덕·정경식 재단'(대표 김한일)이 부담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8월 14일은 지난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이다. 

‘김진덕·정경식 재단’ YWCA연합회 방문

‘김진덕·정경식 재단’의 김한일 대표와 그의 누나 김순옥 재무이사, 김순란 이사장이 8월 16일(금) 한국YWCA연합회를 방문했다. 김한일 대표는 2017년 한국중국필리핀 등 일본군 성노예 피해 13개국에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를 세울 때 이 건립을 주도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에 기림비를 기증했다. 제막식에 참석한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투쟁, 용기를 기억하며 평화와 정의를 기원하는 서울 기림비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근절을 일깨우는 상징물로 후세대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에 기림비를 건립하려는 소망으로, 평화운동과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애쓰는 YWCA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합회를 방문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수 연합회 회장, 김한일 대표, 김순옥 재무이사, 김순란 이사장,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세계Y부회장, 김영자 Y-틴위원회·국제협력위원회 위원(왼쪽부터)

편집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수) 남산도서관 옆 조선신궁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는 일본이 만들었다, 우리 스스로 가서 돈 벌려고 일본군인 상대했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돈이 아니라 사죄다, 거짓말쟁이 아베에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죄 받겠다”라고 증언했다.

동상은 고(故)김학순 할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중국·필리핀 세 나라 소녀가 정면을 보고 서로 손을

연합회 소식

월례아침기도회



7월 월례아침기도회가 7월 4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탈핵생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김성희 목사(안산대 교목)가 ‘사도들의 사도, 막달리 마리아 구하기’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탈핵생명위원회 위원들의 특송이 있었다.

전국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



YWCA 전국사무총장 역량강화교육이 4월 1일(월)~2일(화)를 시작하여 지난 7월 1일(월)~2일(화)까지 YWCA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연차별로 1박 2일씩 2회, 총 8회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1차 교육 48명, 2차 교육 44명 회원YWCA 사무총장들이 참석했다. 성서에 기반한 YWCA 목적문 영성훈련을 통해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지난 97년의 한국YWCA 역사 속에서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새로운 YWCA를 위한 과제를 연차별로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2019년 양성평등주간(7월 1일~7일)을 맞아 제24회 기념식이 7월 4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등을 일상으로-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을 주제로 열렸다. 여성 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6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한영수 연합회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 표창을,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필레 선생 추모예배



김필레 선생 제 36주기 추모예배가 7월 10일(수) 정신학교 김마리아회관에서 열렸다. 정신여중고학생과 동창생, 김필레기념사업회 이사 등 1천여 명이 모인 예배는 한성대 명예교수의 ‘섬없는 열정’이란 주제의 말씀에 이어 이종임 연합회 부회장 기도, 특송, 김필레상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일평생 나라와 여성을 위해 헌신하신 김필레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성명 발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 입장’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7월 1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수출규제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연합회 소식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가 공동 참여했다. 이어 8월 11일(일)에는 '2019 한일 공동 시국 기도회 및 한반도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최로 서울복음교회에서, 8월 15일(목)에는 '한일 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시국 기도회'가 에큐메니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드러졌다. YWCA를 비롯한 그리스도교인들은 역사의 정의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촉구했다.

씽크머니 강사교육



2019년 제2차 씽크머니 강사교육이 7월 24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있었다. 조영미 강사(수원 씽크머니), 홍현정 연합회 부장이 펍핀 모의 수업 워크숍과 강의를 진행했다.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강사들은 태블릿 PC로 QR 코드를 찍어서 나오는 경제 퀴즈 풀기, 연합회에서 개발한 교육용 어플 'FL Shopper'로 아이템 구입하기 등을 체험했다. 올해 새롭게 개발된 펍핀 3차시 '구해줘 홈즈' 보드게임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 51명의 강사들이 참석했다.

제242차 불의날 탈핵캠페인



제242차 불의날 탈핵캠페인이 7월 23일(화) 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방향을 맞춘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들은 "핵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호소문을 외쳤다. 캠페인 시작 전 핵의 위험성, 원자력에 대한 거짓신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들은 핵의 위험성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릴 것과 에너지 절약을 다짐했다.

홍콩 시위 지지 공동기자회견



YWCA연합회를 포함한 한국 92개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가 8월 8일(목) 광화문광장에서 홍콩 시위 지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연대의 뜻을 전했다.

알림

홍보출판위원회 개칭 및 월간 발간주기 변경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회는 인쇄매체 중심의 소통방식을 미디어영역으로 확장하고자 미디어소통위원회로 개칭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부터 월간<한국YWCA>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앞으로 웹레터,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한국YWCA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고

이진용 위원 소천

(1940.8.13~2019.8.15)
한국YWCA연합회 이진용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 2019년 8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이 위원은 1964년 이화여자 대학생 YWCA회원을 시작으로 1969년부터 연합회 지방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담당간사(1969~1998), 2000년부터 회원조직운영위원회, 북한어린이돕기,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평생 YWCA에 헌신하셨습니다.

2019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태백편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한국YWCA 100주년 기념행사로 95주년인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은 한국YWCA 창립 97주년으로, 총 97명의 평화순례단과 일반참가자가 함께합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한국YWCA 회원들의 염원으로 이어진 평화순례의 길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 한민족 디아스포라

목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한민족 여성의 평화통일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과 연대 강화

일정

-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2일(수) (2박3일)
- 태백·정선·영월 일대, 하이원리조트

2017-2018 평화의 태동

2019-2020 평화의 화합과 조화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상징물 디자인〉
2017년부터 6년간 진행되는 평화순례의 상징물 디자인은 3단계로 나누어 변화를 시도하였다. 첫 단계는 '평화의 태동'을 주제로 하여 2017년 한라편과 2018년 지리편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색동이 평화의 생성과 확산을 나타내도록 적색으로부터 홍, 황, 록, 청, 자색의 순으로 반복적으로 회전하며 이어져 있다. 두번째 단계는 2019년 태백편과 2020년 설악편에서 보여질 '평화를 위한 화합과 조화'의 개념으로 색동의 다채로운 색들이 서로 뭉치고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내도록 디자인하였다. 세번째 단계인 2021년 금강편과 2022년 백두편에서는 '미래를 향한 평화의 전진'을 나타내기 위해 색동의 모든 색들이 다 함께 합창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디자인할 계획이다. (색동조각물 디자이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영순)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9. 6. 1~2019. 7.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9. 7. 1 ~ 2019. 7.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민영희,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경, 박임희, 박진화,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정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신,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575,000
개인기부	김경, 김남주, 김미정, 정인혜, 조임근, 최아이크, 익명	512,740
회원YWCA, 부속시설	창원YWCA어린이집	224,300
협력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선교회, 정동제일교회, 하늘가속교회	4,028,000
기관 및 단체	명성약국, 르빵(명동성당점), 에세레젤라또(명동점), 해피빈	14,780
6~7월 모금액		8,354,820
누계		22,180,198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9. 6. 1~2019. 7.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김미경, 박애영, 배정미, 이주영C, 천유란, 추옥선, 최태순, 김춘자, 이화대학교교회, 이진용, 홍성훈, 이희진	1,441,000
5년 약정 6,7월분 완납 명단	김경희, 김순보, 김영숙, 김정순, 김지숙, 김현미, 김현숙, 김형, 김효성, 나순복, 문종숙, 박애경, 박수경, 서효중, 신선, 신성의, 양선희, 이강순, 이경순, 전영지, 정선덕, 정은경, 정은영, 정한나, 조혜숙, 최수경, 최태희, 최현자, 한혜영, 하정화, 황성연, 홍성실	
회원YWCA	울산Y	340,000
6~7월 모금액		1,781,000
누계		9,031,940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장

여성독립운동을 찾아서 'Finding Her'



고양YWCA는 7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을 찾고 고양시민들에게 소개하는 'Finding He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고등학생 9명이 참석해 여성독립운동가 알기,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여성독립운동가 특별전시 관람, 주역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남양주YWCA

이중은 팀장

찾아가는 씽크머니



남양주YWCA는 7월 4일(목), 11일(목) 차산초등학교 3학년 네 개 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씽크머니' 수업을 진행했다. 각 두 개 반 52명씩 나누어 1교시 절약, 저축, 나눔, 기부 등 이론수업, 2, 3교시는 조별 팔찌, 거울, 방향제 등 물건을 만들어 상호 정하기, 물건 값 책정, 판매 등을 해보았다. 조원들간 의견을 나누고 협동심을 발휘하여 이익금을 남기고 기부액도 결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학교폭력문제 캠페인

부천YWCA 청소년만화인권동아리 '스케치'가 7월 13일(토)



역곡역, 남부역 앞에서 학교폭력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토대로 만화로 그려 부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성남YWCA

이진숙 간사

연합위원회



성남YWCA는 7월 11일(목) 연합위원회를 열고 회원증모운동 중요성과 상반기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공유했다. 이어 청소년 환경위원회 주관 '친환경 모기퇴치제 만들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도 진행했다. 9월 연합위원회는 '이사·위원·실무자연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청소년, 인권과 평화를 만나다



수원YWCA는 7월 20일(토)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수원Y-틴 20명과 함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다. '위안

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회원한마음대회



안산YWCA는 7월 12일(금) CGV영화관에서 총 110여 명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한 회원증모운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회원들과 긴즈버그 대법관의 일생을 다룬 '세상을 바꾼 변호인' 영화를 관람하고, 이후 만남의 시간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제안발표회



안양YWCA는 8월 7일(수)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제안발표회'를 열었다.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상 '주민'으로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정책과 예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시정 참여활동이다. 이번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대회에서는 10개팀의 안양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발표를 진행했고, 100여 명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의정부YWCA

김홍례 간사

청소년 꿈의 학교

의정부YWCA는 7월 30일(화) '청소년 별난 미션 프로젝트'



를 진행했다. 의정부YWCA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 '청소년 공익활동 상상N도전'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100명의 청소년을 모집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제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청소년 별난토크', '팀별 6x6소개', '공익활동가 되어보기', '청소년100인' 등의 프로그램은 꿈의학교 Y-틴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별난 움직임이 기대된다.

파주YWCA

전혜은 간사

'평화, 야 놀자!'



파주YWCA는 7월 24일(수)에 청소년 임진각 DMZ 방문 프로그램인 '평화, 야 놀자!'를 진행했다. 참가자 20명의 학생들은 한반도 분단현실 속에서 화해, 상생,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을 나누었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재미있는 금융교실



회원YWCA 소식

하남YWCA는 7월 3일(수), 11일(목)에 덕풍초등학교와 남한중학교에서 금융교실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착한기업가' 프로그램으로 경제활동과 금융환경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 형성의 기회를 마련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회원증모발대식



거제YWCA는 7월 9일(화)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서 2019년 회원증모발대식을 열었다. 예배, 하프 축하연주, 'YWCA 생명, 사랑, 공동체운동' 강의(김형숙 명예이사)를 진행했다. 회원증모 중요성을 강조하고 YWCA 존재 이유를 돌아보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회원증모발대식을 통해 적극적인 회원증모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사, 위원, 실무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우리 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



김해YWCA는 6월 29일(토) 김해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일환으로 '우리아빠는 셰프 요리경연대회'를 진행했다. 가사일이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일임을 인식시키고 가족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빠가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예비신혼부부 학교



대구YWCA는 6월 14일(금)부터 6월 28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예비신혼부부학교를 진행했다. '설렘-러브스토리-상상' 주제로 열 커플이 특강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예비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청소년 어울림 마당



마산YWCA는 7월 27일(토) 청소년 어울림 마당 '잡(JOB)있수다! 多.WOW.樂(다와락)'을 진행했다. 플로리스트, 3D프린팅전문가, 유튜브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직업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인 미래설계를 하도록 지원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창립73주년 감사예배

부산YWCA는 7월 9일(화) 창립7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산YWCA합창단 특별찬양, '만선을 위해' 말씀(김성식 아름다운교회 목사), 축하회 순으로 진행했다. 축하회에서 73주년 영상상영, 부산하나센터 예술동아리 '하나올림'의 축하공연, 축하떡 자르기 등을 진행했다. 명예이사, 이사, 위원, 실무자, 봉사자, 회원 그리고 특별히 오래 전 활동을 했



던 자원활동가와 실무자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환경교육 'EM스쿨'



사천YWCA는 7월 5일(금)부터 18일(목)까지 5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아 및 일반인 대상 환경교육 'EM스쿨'을 진행했다. EM에 대한 이론 교육, EM발효액 만들기, 하천, 셋강 등에 직접 투척하기 등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양산YWCA

조은진 간사

제12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양산YWCA는 7월 2일(화)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2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했다. 150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11명이 발표,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방안을 제안하며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다. 여성이 주체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 여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여성 인적개발과 여성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한 이야기터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양산YWCA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독립역사기행 발대식



울산YWCA는 7월 27일(토) 2019 울산YWCA 청소년 독립역사기행 발대식을 열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떠나는 독립역사기행으로 총 19명의 학생이 기행단으로 위촉받았다. 이날 강제민 한국사전문강사가 3·1운동 역사바로알기교육을 진행했다.

진주YWCA

김민경 간사

찾아가는 금융교육



진주YWCA는 7월 11일(목) 정촌초등학교에서 '핑크머니 찾아가는 착한 기업가 체험'을 진행했다. 2학년 5개 학급 110명이 참가하여 생산, 소비, 판매, 기부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경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YWCA는 2009년부터 11년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해YWCA

이재경 부장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회원YWCA 소식

진해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7월 6일(토) '가족 행복테라피 행복하DAY'를 진행했다. 가족놀이와 가족문화 척도를 통해, 양성평등은 생활언어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골든벨 게임, 양성평등주간 4행시 짓기 등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했다. 회원 가족 40명, 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

민주시민교육



창원YWCA는 8월 9일(금)부터 10일(토)까지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고 민주시민교육 이론과 실습시간을 가졌다. 민주시민교육 강사는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민주 시민으로서의 주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마을캠페인



통영YWCA는 7월 25일(금) 미수해양공원에서 '제2회 통영YWCA 마을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을캠페인은 통영YWCA 주력운동인 탈핵생명, 성평등, 소비자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탈핵배지 만들기, EM비누 만들기, 양성평등감수성 다투,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 생협상품 판매 등을 했다. 또한 탈핵캠페인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포항YWCA

이유정 간사

청소년캠프

포항YWCA가 정곡력상담소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마련



한 '청소년캠프'가 7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엘프리 글램핑장에서 진행됐다. 김정욱 감독(전 인간극장PD)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콘텐츠 구별법과 UCC제작법'을 강의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UCC를 만들었다. 또한 물놀이, 집단 '아름다운 나, 자랑스러운 나' 놀이, 모험놀이 등 비경쟁놀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신체 활동을 하며 협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복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소문난 떡 초보의 사랑나누기



강릉YWCA는 7월 16일(화) 옛날떡집에서 '소문난 떡 초보의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민연금공단강릉지사 수급자 모임으로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찰호박 영양떡을 직접 만들어 홀로 계신 115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

동해YWCA

김보람 간사

강원평화네트워크 발족식



동해YWCA는 7월 11일(목) 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강원평화네트워크 발족식을 열었다. YWCA강원협의회 박경옥 회장, 전금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숙현 강원

여성연대 대표를 비롯한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강원여성평화네트워크는 강원지역여성들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서울YWCA는 7월 20일(토)부터 26일(금)까지 미국NIKE와의 협력사업으로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Girls, Enjoy Sports and Challenges'를 진행했다. 약 7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스포츠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셀프 디펜스 훈련, 스포츠 놀이문화 체험 등을 함께했다. 청소년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스포츠를 통한 도전 정신과 성취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속초YWCA는 6월 20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속초YWCA 강당과 대한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심화과정교육'을 진행했다. 5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과정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자격증 취득 관련 모의고사로 총 55시간 진행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19명은 속초 지역 내의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속초YWCA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취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환경 스쿨 '아.다'



원주YWCA는 7월 4일(목)부터 10회에 걸쳐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스쿨'을 진행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미세먼지, 물, EM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에코백 만들기, 미세먼지 잡는 화분 만들기, 천연비누, 세제 만들기를 진행했다.

인천YWCA

이강희 간사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정기총회



6월 25일(화) 인천YWCA 강당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가 조직을 정비하고 인천지역 사회적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의 상임대표로 조철숙 인천YWCA 회장이 선임됐다. 올해 인천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활성화, 조직 및 역량 강화, 시민인식 개선을 우선 순위로 활동하고자 한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7월 회원무료특강



춘천YWCA는 7월 9일(화) 춘천YWCA 강의실에서 회원 무료특강을 진행했다. EM전문가에게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회원YWCA 소식

배우고 안전한 선스프레이를 만들었다. 춘천YWCA는 유용한 미생물(EM)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지식과 생활 속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색과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 주최, 광주YWCA 주관으로 7월 4일(목)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지운 광주YWCA회장 인사말에 이어 모범 부부 및 유공단체, 유공시민 등 5개 부문 유공자 시상 있었다. 기념식 이외에도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한 사회이루기 캠페인 부스, 문화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인구 교육



남원YWCA는 7월 11일(목) 임신부와 남원시민 대상 인구 교육을 진행했다. 남원시 인구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안정진 인구강사가 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남원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과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진도군-목포YWCA, 어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목포YWCA는 7월 24일(수) 진도군 군내면 신기어촌마을에



서 이사, 직원,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목포 YWCA '어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다. 목포YWCA와 신기어촌마을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진도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전시·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농어촌 체험활동 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호증진과 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순천YWCA

손모아 주임

청소년농촌체험캠프



순천YWCA는 7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순천주암생명숲돌봄센터 주변 용오름마을에서 Y-틴을 비롯한 중·고등학생 38명, 대학생지도자 5명과 함께 '청소년농촌체험캠프'를 진행했다. 마을 일대 잡초제거 등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돌봄센터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시장, '농업인과의 만남' 강의 등을 진행했다.

여수YWCA

김혜영 간사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상담센터 20주년 기념식



여수YWCA는 7월 2일(화) 여수진남문화회관에서 '양성평등주간 및 여수YWCA 부속 여수여성상담센터 20주년' 기

념행사를 개최했다. 1부에서 20년 동안의 여수여성상담센터 공적을 돌아보고 2부에서 가정폭력피해 여성이 아픔을 달고 새로 피어나는 내용의 인권감수성 심리극 콘서트 '동백꽃 피다'를 진행했다. 여수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평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익산YWCA

홍진 간사

찾아가는 착한 기업가체험



익산YWCA는 7월 23일(화) 함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착한 기업가체험'을 실시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경제가치관을 주제로 한 경제수업, 학생들이 기업가와 소비자가 되어 보는 착한 기업가 체험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창립 50주년 기념 백두산 평화기행



전주YWCA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7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이사, 실무자, 회원 28명과 백두산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또한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하여 200만원의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부스운영

제주YWCA는 7월 6일(토) 제주시청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했다. 양성평등세미나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디지털 영상물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렸다. 체험 활동으로 손부채 만들기, 에코가방에 양성평등 관련 메시지를 적거나 스탬프를 찍어 '평등바람'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중부

논산YWCA

조아영 간사

2031 중장기발전 워크숍



논산YWCA는 7월 9일(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모여 '2031년 창립 30년을 향한 중장기발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활동을 성찰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 도출을 통해 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20년의 단기계획과 30년의 회원Y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었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대전여성포럼



대전YWCA는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7월 4일(목)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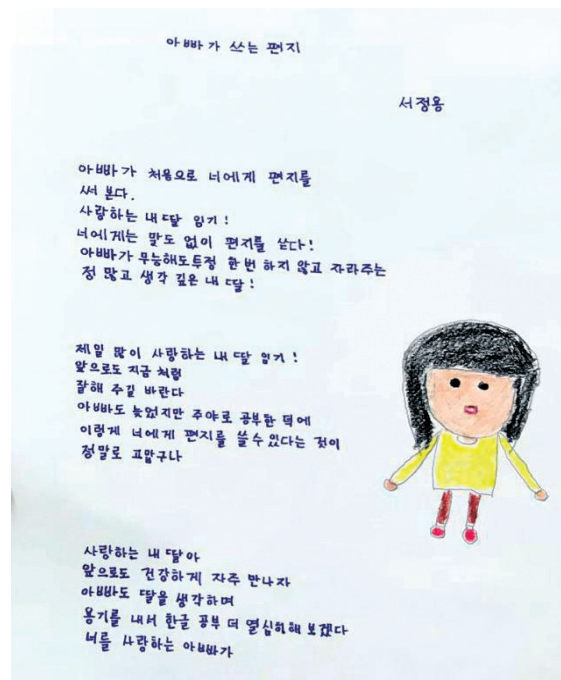
회원YWCA 소식

관 강당에서 '다문화가정 내 부부성불평등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4회 대전여성포럼을 열었다. 정혜원 교수(배재대)가 결혼이주여성 253명 대상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주제발표, 사례발표 등이 있었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하며 결혼이주여성의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공유했다. 이날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YWCA

허미정 부장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 1위



세종YWCA 등불야간학교 서정용 어르신이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한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아빠가 쓰는 편지"로 1위에 선정됐다. 한글을 몰라 자녀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지 못했던 아쉬움이 가득했던 아빠가 1년 동안 한글을 배워 마음을 담아 딸에게 쓴 첫 편지로, 문해교육을 통해 가족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희망과 꿈이 담긴 작품이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제천YWCA는 7월 18일(목) 역전 한마음시장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민과 상인들에게 부채를 나눠주



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력소모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불필요한 전력을 줄이도록 상점에서는 문을 닫고 냉방을 하면 전력을 66% 아낄 수 있고 가정에서 실내건강온도가 2도임을 알렸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창립 54주년 기념식



청주YWCA는 7월 11일(목)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부 예배, 2부 토크쇼로 진행했으며 'YWCA를 말하다'라는 주제로곽성숙 부회장, 한기연 실무활동가, 정미향 전 대학 Y회원, 평생회원, 송소연 대학청년Y회원, 류지봉 충북NGO 센터 센터장 등 6명의 패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YWCA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힐링캠프



충주YWCA는 6월 29일(토)에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모녀 20가정과 함께 '일탈녀들의 행복한 힐링캠프'를 열었다. 문경보 소장(문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의 모녀마음 알아보기 특강, 고봄이 대표(연희극단 녀영나영)의 소통과 공감 공동체 놀이를 진행했다. 모녀가 서로의 마음 바라보기를 통해 공감 지수를 높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2인실

평균 70,000원
↓
약 28,000원
간호7등급기준

3인실

평균 47,000원
↓
약 18,000원
간호7등급기준

입원료의 본인부담비율은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50%	40%	30%	20%
종합병원	비급여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 비율

50%

2020년
1월부터 적용

60%

